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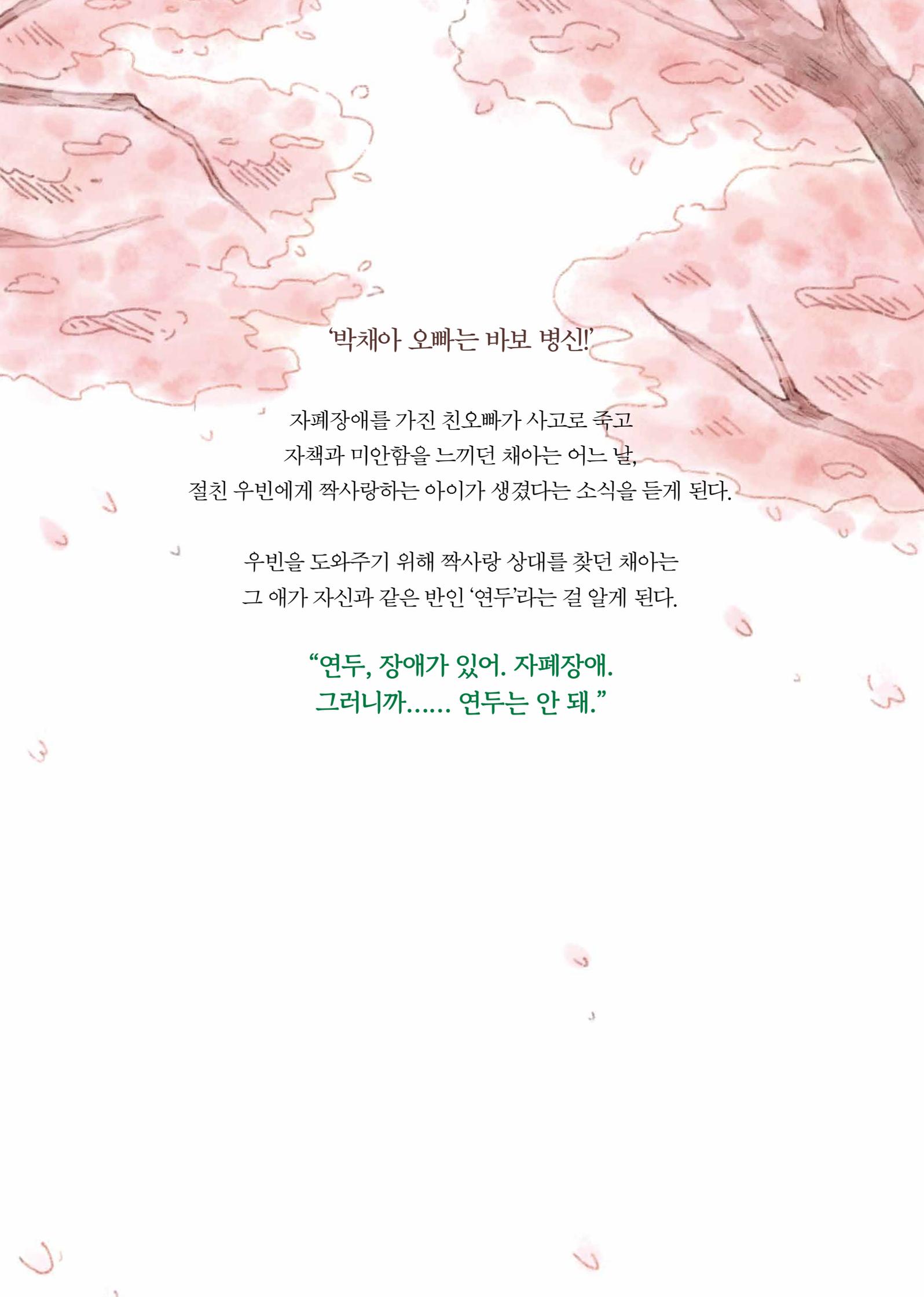
# 세상의 \_\_\_\_\_ 모든 연두



독 후 활동 지

이름  
학교 | 학년  
지도교사

특별한서재



‘박채아 오빠는 바보 병신!’

자폐장애를 가진 친오빠가 사고로 죽고  
자책과 미안함을 느끼던 채아는 어느 날,  
절친 우빈에게 짝사랑하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우빈을 도와주기 위해 짝사랑 상대를 찾던 채아는  
그 애가 자신과 같은 반인 ‘연두’라는 걸 알게 된다.

“연두, 장애가 있어. 자폐장애.  
그러니까..... 연두는 안 돼.”

『세상의 모든 연두』를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만약 내가 그 장면의 등장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

---

---

### 만약 내가 등장인물 ( )이었다면...

---

---

---

---

아래의 채아와 연두의 대화를 읽고, 나라면 연두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짧은 편지를 적어보세요.

“연두야, 나 너한테 또 할 말이 있어. 친구들에게 네가 혼자 있고 싶어서 비켜달라고 말할 때, ‘미안해’라는 말은 안 해도 돼.”

“으, 응?”

“미안해. 나는 장애가 있어. 혼자 있고 싶어. 좀 비켜줄래?”라고 말할 때, ‘미안해’는 안 해도 된다고.”

“으, 응?”

“네가 장애가 있는 건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 연두에게...

---

---

---

---

---

아래 제시문은 『세상의 모든 연두』 속 채아의 속마음입니다. 나는 장애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글을 읽고 내 생각을 적어 보세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착한 행동에는 ‘배려’나 ‘양보’의 의미보다 ‘동정’과 ‘연민’의 의미가 더 많이 담긴다. 우리가 장애를 마주하는 시선은 늘 그렇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볼 때 불쌍함을 느끼는 것을 자신이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한다. 뭐, 틀린 것은 아니다. 그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채아는 그 ‘착한 마음’이라는 것이 종종 헛갈렸다. 불쌍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들조차 오빠가 가까이 다가가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 안에도 차별은 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정말 ‘착한’ 걸까?

---

---

---

---

---

---

다음은 우빈이 자신의 엄마에게서 배운 ‘우정’을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와 진정한 우정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빈이는 엄마에게서 ‘우정’이 뭔지를 배웠다. 어쭙잖은 동정이나 입에 발린 위로는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쁨이든 슬픔이든 혹은 고통일지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싸우는 것이 엄마에게서 배운 ‘진짜 우정’이었다.

엄마는 늘 채아의 엄마와 함께 싸웠다. 엄마는 우빈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낯선 모습으로 욱도 하고 소리도 지르며 채아의 엄마 편에 서서 함께 싸웠다.

###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우정이란...

---

---

---

---

---

---

채아는 주희를 미워하지만, 끝끝내 포기할 수 없어 언젠가 주희가 변화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연두』의 마지막 페이지 이후,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채아와 주희의 뒷 이야기를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